

國民倫理教育科 教育課程의 구성과 당면 과제

鄭 世 九
(서울대 國民倫理教育科)

1. 序 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學科 중에서 그것의 教育課程 構成 등의 科運營 문제와 관련지어 國民倫理教育科처럼 諸般 문제가 山積해 있는 학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과의 경우에는 그의 性格이나 rationale가 傳統的인 하나의 학문 분야나 영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教育課程 構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合意된 이론 案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윤리교육과는 그것 자체가 學際的 接近을 취하고 있어 어떤 하나의 學問分野에 의존하지 않음은 물론 그 設置 過程에서도 어떤 학문적 탐구의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國家·社會的 요구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科의 성격이나 그 教育課程에 대하여 普遍妥當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국민윤리교육과의 日淺한 歷史('81년 신설)는 그것을 가능케 할 만한 시간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與件下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案內의 목적으로 국민윤리교육과의 설치 배경을 밝히고 다음은 교육 과정 構成實態를 규명하고 뒤이어 교육 과정의 當面課題와 그 解決 方案까지도 어느 정도 제시하려 한다. 국민윤리교육과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는 물론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교육 과정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하려고 한다.

2. 국민윤리교육과의 設置 背景

'81학년도부터 전국의 國立大學 중심으로 한 14개 大學에서는 中等學校 道德科와 國民倫理科 전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민윤리교육과를 설치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으로 가장 특기할 만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中學校의 道德科와 高等學校의 國民倫理科 담당 교사 養成制度의 跛行성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教師養成制度 改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교과 활동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는 교과는 그 교과를 담당할 교사 양성을 전담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科를 지니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유독 중학교 도덕과와 고등학교 국민윤리과의 경우에는 師範大學이나 그 외 어떤 대학에서도 담당 교사를 양성하는 科를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1973~'74년 제3차 교육 과정 改正時 중·고등학교에 新生教科로 등장한 도덕과와 국민윤리과의 경우에는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의 有關한 15개 학과, 즉 哲學領域의 哲學科, 東洋哲學科 등의 5개 학과, 宗教領域의 神學科, 佛敎學科 등의 5개 학과, 그리고

教育心理領域의 教育學科, 心理學科 등의 5개 학과에서 소정의 敎職科目을 이수한 자에게 ‘道德’ 및 ‘倫理’의 교사 자격증을 수여해 왔다. 따라서 동 有關敎科를 수료하고 교직 과목만을 이수함으로써 중학교 도덕과와 고등학교 국민윤리과를 교수한다는 것은 專攻內容과 敎科內容간의 相馳되는 점이 너무 많아 교사 양성에 문제성이 있음이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었다. 특히 당시에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었던 中等學校 理念敎育을 담당하기에는 동 學科들을 졸업한 교사들의 知的 背景이 부적절함이 지적되었다.

둘째, 당시의 10·26事態 이후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靑少年 精神敎育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또 실제로 많은 精神敎育 專門家들이 동 敎育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0·26사태 이후 정부 당국은 광범한 社會淨化施策을 통하여 社會的 非理와 陋習을 타파하고 건전한 정신적 풍토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학교 교육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內實 있는 정신 교육의 실현이 추구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뜻 있는 國民倫理敎育研究會(후에 國民倫理學會) 회원들은 국민윤리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대학에 국민윤리교육과의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上記한 바 노력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이 '80년 6월에 거행된 국민윤리교육연구회 夏季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민윤리 교육의 강화 이유로 “대한민국을 近代化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國民文化를 창조해야 하며 또 理念的 分斷時代의 통일과 승리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하여 분명하고 說得力 있는 國民的 政治意識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 강조된 바 있다. 또 政治展發, 民主化, 自由化의 전제가 되는 國民的 合意와 國土統一의 기반을 강제 권력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自發的인 協助와 自由意思에 의하여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

민 정신 교육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였다.

셋째, 앞에서 지적한 바 2개의 상황이 국민윤리교육과 設置의 興件을 조성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민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人士가 文敎部長官職을 맡게 됨으로써 科 誕生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의 국민윤리 과목의 중요성과 관련지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에서 국사, 국어, 미술, 음악, 체육 등을 통해서도 조국에 대한 一體感을 길러주고, 국민으로서의 바른 생활 태도를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이런 교육을 책임 있게 통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과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이 외에도 國家建設을 위한 國民訓練, 南北間 體制 對立을 위한 思想訓練 등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교사들만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국민윤리교육과의 敎育課程 구성

'87학년도 전국 대학 학과 및 계열별 모집 인원 상황에 따르면 국민윤리교육과는 서울대를 비롯한 11개 國立大와 釜山産業大 등의 3개 私立大에서 총 321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다¹⁾. 국민윤리교육과를 설치하고 있는 14개 大學의 교육 과정은 일정하지 않으며 각 대학 나름대로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85년 12월에 國民倫理學會가 주최한 제 1차 전국 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세미나에서 국민윤리학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敎育課程案과 전국의 9개 국립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육 과정을 분석·발표한 내용²⁾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 구성 실태를 밝혀려 한다.

먼저 國民倫理學會에 의하여 제안된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 과정은 그 구성의 원칙에서 國民倫理敎育의 目的, 學問的 體系, 中·高校의 ‘道德’·

1) 인접 科인 國民倫理學科는 10개 학과에서 350명의 학생을 모집하였음.

2) ‘節範大學 國民倫理敎育科의 敎育課程 構成’이라는 논문에서 서울大, 江原大, 忠北大, 公州師大, 全北大, 慶北大, 釜山大, 慶尙大, 濟州大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全南大와 韓國敎員大는 자료를 송부하지 않아 제외되었음.

‘國民倫理’ 교과 교육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따라서 동 교육 과정은 “우리 민족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이념과 가치 체계 및 규범 체계 등 국가 생활의 원리를 정립해 가며 이 원리와 일관된 바람직한 국민적 성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국민윤리 교육의 一般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規範學과 人文·社會科學의 여러 學問領域을 포괄하는 통합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윤리교육과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敎科目 編成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먼저 敎科敎育 과목 영역에서는 교과 교육의 중심 과목으로 광범하게 합의를 보았고 文敎部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國民倫理敎育論, 國民倫理指導法, 國民倫理敎材研究의 3과목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 주변 과목으로 國民倫理學講義과 政治敎育論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敎科內容 과목 영역 중 韓國思想 및 政治의 下位 領域에서는 한국의 思想的 根源과 오늘날의 政治的 現象과 指導理念을 다루는 韓國思想史, 韓國政治論, 民主主義論을 필수 과목으로 두었고 民族主義論, 新生國政治論, 國際政治와 韓國 등 국내의 정치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두고 있다.

倫理 및 社會思想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집단 사회 속에서의 규범의 문제와 國民倫理學의 학문적 근거를 밝히는 人間·社會·倫理와 國民倫理學概論 등을 필수 과목으로 설치하고 있고 윤리학의 기초 및 東·西洋의 윤리를 다루는 倫理學概論, 東洋倫理思想, 西洋倫理思想 등의 과목을 설치하고 있다.

共產主義 비판 및 北韓 문제의 下位 영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기초와 북한의 정치·군사적 현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北韓研究 I을 필수 과목으로 설치하였다. 또 최근 청소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現代의 急進思想도 필수 과목으로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공산주의의 발달 과정과 다양한 체제적 비교, 그리고 우리의 통일 문제를 취급하는 共產主義 運動史, 共產主義體制比較, 南·北韓關係와 統一問題 등의 과목을 설치하고 있다.

國民倫理學會에 뒤이어 서울大 사범대 국민윤

리교육과의 현행 교육 과정은 중·고등학교의 도덕과와 국민윤리과를 전담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국민윤리와 관련한 國民精神敎育 및 反共敎育을 실시하는 각계의 교원 및 연구 기관의 연구 요원 양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 과정은 국민윤리 교육의 목적, 내용, 지도 방법에 관한 規範學的·社會科學的 및 行態科學的 研究를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국민윤리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지도 방안을 體系化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 교육 과정은 국민윤리 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敎育課程 요소에 해당되는 국민윤리 교육의 지도 원리 및 실제 방안을 다루고 동시에 그 주변 과목인 價值敎育 및 政治敎育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국민윤리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광범한 哲學, 史學, 政治學, 社會學, 經濟學, 敎育學 등의 학문 영역에 대한 광범한 탐구를 통하여 국민윤리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터운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편성된 서울大 師範大學 국민윤리교육과 교육과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敎科敎育 과목 영역에서는 교과 교육 필수 과목으로 文敎部와 師大評價委員會에서 결정한 國民倫理敎育論, 國民倫理指導法, 國民倫理(社會科) 敎材研究를 전부 필수 과목으로 설치하고 있다. 특히 국민윤리 교재 연구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이 社會科 과목도 가르칠 것에 대비하여 社會科 敎材까지도 전부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과 교육 주변 과목으로 國民倫理學講義를 필수로, 또 比較政治敎育論 등을 선택으로 설치하고 있다.

敎科內容 과목에서 한국 사상 및 정치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으로는 한국 사상의 기초 과목과 윤리적인 면을 다루고 우리의 지도 이념을 강조하는 韓國思想概論, 民主主義論을 필수 과목으로 정하였다. 그 외에도 政治學의 기본 이론과 體制上의 특징을 비교하는 안목을 길러 주기 위한 國家論, 韓國政治論 特講, 國際政治體系論 등을 설치하고 있다.

윤리 및 사회 사상의 영역에서는 윤리적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現代倫理學概論을 필수 과목

으로 정하고 그 외 사회 사상과 관련되는 規範學과 社會科學의 광범한 문제들을 다루는 교과목 편성을 하였다. 그 중에는 社會思想史, 文化와 倫理, 社會倫理研究에서부터 社會科學概論, 社會科學方法論, 韓國經濟體制論, 社會福祉論 등이 포함되고 있다.

공산주의 비판 및 북한 문제의 영역에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초 과목인 공산주의 이론과 실재를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공산주의의 전개 과정과 주변 지역에서의 특성 그리고 북한에 초점을 맞춘 共產主義運動史, 共產主義體制比較, 亞細亞共產主義論에서부터 北韓의 政治論과 社會論을 두고 있다. 국민윤리학회 서울대 교육 과정에 뒤이어 전국 8개 國立大 사대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 과정을 보면 그 편성에 있어서의 공통되는 취지나 기준은 찾기 어려웠다. 교육 과정 구성상의 특성만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教科教育 과목 영역에 대해서 보면 2개 대학에서는 교과 교육 필수 중심 과목으로 결정한 國民倫理教育論, 國民倫理指導法, 國民倫理教材研究를 설치하고 있으나 그 나머지 대학에서는 1~2개의 교과목 설치로 끝나거나 전혀 두지 않는 대학도 있었다. 교과 교육 주변 과목에 대해서도 政治教育論이나 道德教育研究와 같은 과목을 3과목 이상 설치한 大學도 있으나 나머지 대학들은 1~2개 과목 혹은 전혀 설치하지 않은 大學도 여럿인 것으로 나타났다.

教科內容 과목 영역 중에서 특히 한국 사상 및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5개 이상의 대학이 공통으로 설치한 韓國思想, 韓國倫理思想, 韓國政治論, 民主主義論의 과목이 있고 3~4개 대학에서 설치하고 있는 國際政治와 韓國, 新生國政治論, 國難克服史도 있다. 윤리 및 사회 사상에 대해서는 5개 이상의 대학이 공통으로 설치하고 있는 國民倫理學概論, 倫理學概論, 東洋倫理思想(東洋政治思想), 西洋倫理思想史, 現代哲學思潮, 政治社會化論 등이 있다. 끝으로 공산주의 비판 및 북한 문제 영역에 대해서는 5개 이상의 대학이 설치하고 있는 교과목으로는 共產主義理論批判, 共產主義體制比較論, 共產主義運動史, 北韓政治論, 北韓研究가 있고 3~4개 대학

에서 설치한 과목으로는 共產主義 戰略戰術, 南北關係와 統一問題가 있다.

4. 국민윤리교육과 教育課程의 당면 과제와 그 해결 방안

국민윤리교육과 교육 과정의 당면 과제 중에서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윤리교육과에서 양성하려는 理想的 教師像을 어떻게 구상하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 과정 자체가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는 手段의 目的을 지녔다면 교육 과정의 기대하는 성과 혹은 終着點 行動을 그려 보는 것은 교육 과정 편성의 기준이며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앞에서 지적한 바 제1차 전국 대학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들은 바람직한 道德科, 國民倫理科 담당 教師像으로 ① 투철한 국가관, 시국관, 교직원관을 지닌 신념 있는 교사 ② 해박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교양을 지닌 이지와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교사 ③ 직업인으로서의 탁월한 학습 지도 능력을 지닌 전문적인 교사를 합의한 바 있다.

도덕과와 국민윤리과의 목적이나 내용이 중등학교 학생들의 理念定向이나 人生設計에 직결되어 있고 특히 동 教科의 교사는 학생들의 意見 先導者로서뿐만 아니라 同一視 혹은 模倣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바람직한 價値觀이나 信念의 確立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도덕과와 국민윤리과의 내용은 하나의 학문 영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學際的 接近을 취하고 있는 이상 政治學, 哲學에서부터 教育學에 이르기까지는 광범하고 심층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教師는 專門人으로서의 고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指導 方法이나 技法의 구사에서부터 授業運營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지적한 理想的 教師像은 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두번째의 당면 과제는 앞에서 지적한 바의 理想的 教師像에 부합되는 교육 과정의 과목 편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교과목 분류를 어떻게 하며 각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 결정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제 1

차 교수 세미나의 참석 교수들은 투철한 국가관, 시국관, 교적관을 지닌 신념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敎科敎育 과목과 敎科內容 과목이 필요하고, 해박한 전문 지식 및 탐구 방법과 풍부한 교양을 지닌 이지와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敎科內容 과목과 敎養科目이 필요하다는 데 सह意를 하였다.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탁월한 학습 지도 능력을 지닌 전문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敎科敎育 과목과 敎職 과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上記한 바 과목 분류에서 敎養科目과 敎職科目을 전공 과목에서 제외하면 敎科敎育 과목과 敎科內容 과목이 전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전공 과목에 속하는 敎科科目으로 합의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敎科敎育 과목 중에서 중심 과목은 종래의 國民倫理敎育論과 國民倫理指導法 그리고 國民倫理敎材研究가 국민윤리교육과의 正體性과 일치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주변 과목으로는 政治敎育, 價値敎育論, 比較政治敎育論, 道德敎育論, 國民倫理講讀을 다루는 것에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敎科內容 과목은 國民倫理學會와 서울대에서 제시한 韓國思想 및 政治, 倫理 및 社會思想 그리고 共產主義批判 및 北韓問題 과목 영역으로 3분하기로 하였다. 각 영역에 속하는 필수 과목으로는 韓國倫理思想, 民主主義論, 韓國政治論, 倫理學概論,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 北韓政治論을 결정하였다.

세번째의 당면 과제는 교육 과정 구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속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敎授의 資質을 어떻게 제고시키고 또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로서의 矜持 혹은 正體性에 관한 것인데 이제까지 師範系 大學 評價報告書에 따르면 적지 않은 師範大 敎授가 교사 양성에 관심이 없고 意識的, 無意識的으로 일반 대학에서의 교과 내용 구성 및 접근법을 추종하려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師範大學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긍지를 느끼지 않으며 기회만 있으면 專攻內容만을 전공으로 하는 一般大學으로 소속을 옮기려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범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國民倫理敎育科의 해당 여부는 不明하나 국민윤리교육과에서의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이에 대한 특별한 對備策을 제시할 수는 없다. 또 그것은 所屬敎授들 자신들의 人生觀이며 삶의 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 교수들에게서 個別的으로 나타나는 外的 特性만으로는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수 자신들의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로서의 正體性 확립을 장시간에 걸친 價値內面化 현상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들은 단계적으로 碩·博士課程에서 국민윤리 교육을 전공한 교수들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대학원의 예를 든다면 30여 명이 넘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국민윤리교육 전공자로서의 正體性을 다짐하면서 敎科敎育 혹은 韓國思想 및 政治, 倫理 및 社會思想, 共產主義 및 北韓 등에 관한 전문 내용에 깊은 탐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5. 結 言

앞에 서언에서 국민윤리교육과의 교육 과정 구성이 다른 어떤 과의 교육 과정 편성의 경우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당면 과제로 국민윤리교육과에서 양성하려는 이상적 교사상의 문제, 이상적 교사상에 부합되는 과목 편성의 문제, 그리고 교과목을 담당할 바람직한 교수들의 資質과 姿勢의 問題를 지적하였다. 그 解決方案으로는 필자 자신의 견해도 개진하였지만 그 보다는 국민윤리교육과 소속 교수들이 세미나에서 합의한 바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윤리교육과 교육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中等學校 敎科를 전담할 교사의 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나라 靑少年 精神敎育을 이끌어 갈 專門家들의 양성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좀더 深層的이고 長期的인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1세기의 바람직한 韓國人像은 결국은 앞으로의 道德科, 國民倫理科를 전담할 中等學校 敎師像으로부터 적지 않게 비롯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